

네팔의 대홍수 앞에 옷깃을 여미며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장

히말라야 산악 지대인 네팔 북중부 트리슈리강 일대에서 2026년 8월 26일 일어난 대홍수는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날, 산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며 토석류가 강변 마을을 휩쓸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니깐요. 이 대홍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더 규명되어야 하지만, 그 배경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석연료 남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 등의 빙하가 녹아, 산사태와 홍수가 이어지고 물 부족에 따른 식량난과 분쟁, 난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인도의 차몰리, 스위스의 블라텐 등 고산지역의 대규모 빙하·암석 붕괴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가 일어나기 몇 주 전, 미얀마 쪽에 가까운 중국의 윈난성 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고봉이 5596미터에 이르는 옥룡설산(玉龍雪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의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물이 폭포를 이루고 수로를 만든 곳, ‘람월곡’이란 계곡에 가봤습니다. 겨울에 쌓인 눈으로 얼음의 면적이 늘었다가 봄, 여름, 가을에 녹아내리는 빙하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식수, 농업용수로 쓰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옥룡설산의 빙하도 온난화 탓에 면적이 줄어, 1950년대에 비하면 40%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줄면 나시족 전통문화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리장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아 옥색으로 반짝이는 계곡물을 보니,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던 지난여름, 많은 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여름에 비하면 가장 시원한 건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나눴습니다. 40도 기온이 흔한 여름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촌 곳곳을 태우는 대형산불, 전례 없는 가뭄, 더 강력해진 태풍과 홍수에서 누구도 마냥 안전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나라에 속하는 네팔 사람들이 먼저 참화를 겪고 있지만, 초대형 재난이 닥치면 부자나라·대도시도 무사하진 못할 겁니다. 모두 뚝뚝 뭉쳐 기후변화를 완화(mitigation)할 실천에 나서고, 불가피해진 재난에 맞서 적응(adaptation)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몰아세우며 석탄·석유·천연가스를 더 파내라(drill)고 외칩니다. 국내에도 산업적 이해관계 등으로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정부 대응은 가야 할 속도에 비해 미진합니다.

앞에선 맹수가 달려오는데, 뒤에선 탈출구가 닫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아고라’는 이 질문에 관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과 저널리즘연구소의 답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게 하려면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엄중성과 긴박성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는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후저널리즘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후아고라가 돕고자 합니다.

국내외의 탁월한 기후·에너지 보도가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에게 가 닿도록, 우수보도를 모아 전파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언론인이 시의성 있고 정확한 취재 자료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후과학과 에너지 분야의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허위조작 정보가 여론을 왜곡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이 철저하게 검증한 팩트체크 결과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선의 기자·PD 등이 꼭 필요한 기획을 하고 완성도 높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 특강과 저널리즘세미나 등의 교육 영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언론인, 전문가가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의 엄중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에너지전환 등 필요한 대응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토론과 합의를 이끄는 공론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고라(Agora)는 잘 알려진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다투고,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했던 광장입니다. 기후아고라는 일반 시민과 언론인, 전문가 등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이 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는 광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 소박하게 출발하지만, 나날이 성장하며 약속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